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고찰 : 목회자의 재정을 중심으로

구준호 예수랑 교회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two significant aspects of life in pastors – namely ministry and livelihood – to be integrated to bring vitality to ministry, and proposes this be achieved through pastors’ “financial freedom.” For present-day pastors, salary from church is almost the sole source of income, and this is problematic because of polarization between mega churches and financially dependent churches, and growing individualistic nature of churches which overlooks the absence of the greater Church. The laymen also have a responsibility here. Many pastors today hold two jobs and this is a struggle they take on to support ministry and livelihood. Some argue that pastors must live by depending on the grace of God (“living on the ravens” as mentioned in 1 Kings 17:1–7). However, through Scripture, God has already revealed financial principles His servants need to live by. Levitical cities in the Old Testament were like minimum wages for Levites who received no other inheritance but were to devote their lives to serving God. This principle continues into the New Testament era. Tentmaking in the New Testament is an amazing way for present-day pastors to achieve financial freedom(this is called bivocational ministry). From Levitical cities to tentmaking, this study presents financial principles for pastors. Obeying the “decrees and laws of God” written in the Bible will provide great vitality to the stagnant Korean church(Leviticus 25:18–19).

Keywords: pastor, bivocational ministry, financial freedom, Levitical city, tentmaking

I. 서론

엘리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울어지고 바알숭배가

아주 극도에 이르렀던 시대이다. 여호와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설자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하나님은 이 때 선지자의 대명사격인 엘리야를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신다. 우리는 흔히 까마귀가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월튼(Walton, 2000: 537)은 까마귀가 음식을 저장하는 습성을 엘리야가 알고 그들의 음식을 꺼내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릿시넷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까마귀의 도움’을 사모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지만, 또한 아주 틀린 말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그 가뭄의 때를 견디게 하신 이유는 그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섬김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는 열왕기상 18:4에서 잘 보여준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조직적인 소탕작전에 착수하고 있었다(Bimpson, 1994: 483).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아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¹⁾ 따라서 하나님은 한시적 도움으로 ‘까마귀’를 보내신 것이지, 이것이 엘리야의 삶의 평생을 책임질 것은 아니었다.

II. 목회자와 재정의 연관성

목회자는 필연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목회자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값싼 목자라 불러 마땅하다(요 10:12-13). 그래서 스펀전 목사는 목사가 되려는 후보생들에게 목사의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당부하며 만약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를 고려한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purgeon, 2012: 51-55).

목회자는 목회사역에 집중하여 성도를 목양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잘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일에 전담하는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을 책임져야 하고, 목사는 그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1) 대천덕 신부는 『토지와 경제정의』 라는 책에서 바알숭배자였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바알의 경제는 토지사유화를 정당화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도 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호와와 신앙으로 산다면 경제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이러한 여호와와 신앙만이 레위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레 25장).

헌신하여 말씀으로 목양하며, 생명을 다해 주께 충성해야 한다. 따라서 목사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Spurgeon, 2012: 44). 고린도전서 9:6에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100%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때로는 담임목회자에게 집중되어 부교역자에게는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교회는 매년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등록된 각 성도들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지정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임대비와 유지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²⁾ 어떻게 이러한 실제적인 재정방법이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가 칼빈의 개혁사상을 이어 받은 화란계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개혁을 넘어 세속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제네바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완모, 2013: 107-132). 그러므로 칼빈의 개혁의 대상에는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돈의 올바른 사용 곧 돈이 지니는 봉사의 기능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었다(전강수, 1991: 207). “칼빈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Biéler, 1992: 55-56).”

유럽은 대체적으로 국가교회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 말은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주었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우는 종교세(일명 교회세로 알려진 Kirchensteuer)가 있어서 목회자가 준공무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³⁾,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이러한 종교세가 있어서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⁴⁾. 오늘날 이러한 국가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종교세 납부 거부 등이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은 종교세를 유지하고 있다.⁵⁾

한국의 경우는 선교사들의 복음전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네비어스 선교방법에 의해서 자치, 자립, 자전의 교회관으로 교회가 외부의 간섭이 아닌 스스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되며,

2) 필자는 네덜란드에 살며 현지교회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목회현실에 대해 공감하였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 합의하여 제정을 세우는 네덜란드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 (검색일 2023.08.17.)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7331> (검색일 2023.08.18.)

4) 피어시(Pearcey, 2006: 482-485)는 미국의 초창기에 존재했던 국가교회 시스템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약화되었다. 사업이든 학교든 교회든, 독점은 계엄령을 낳기 마련이다.”라고 말한다.

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53372.html (검색일 2023.08.18.)

외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스스로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⁶⁾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100% 재정자립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교회의 불균형성과 공교회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불균형성이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오지와 산간 등 비교적 외지에서의 교회성장이 없음으로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로 과거에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이동—이것은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책임질 수 있는 주 경제계층의 인구이동—으로 노년들만이 대부분 남게 되어 교회의 재정적 자립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피어시는 산업화에 따른 가정파괴의 문제에 대해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이들의 양육을 엄마의 역할로만 축소했고,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본래 하나님은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모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일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Pearcey, 2006: 600–609). 따라서 오늘날의 도시화 속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화는 한편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김동석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도시화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는 결국 선교 현장의 다양성에 맞는 적합한 사역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집중되므로 선교의 자원이 풍성해져 다양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석, 2023: 18).

두 번째로 교회의 공교회성의 부재가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헌금으로 교회의 존립을 위한 책임감을 다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교회의 자발적 헌금은 큰 도전이 된다. 대형교회가 필요한 하지만,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는 헌금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을 즐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의 대형교회도 그 교회의 재정을 활용할 때에 단일 교회의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은 책임을 져주지만, 지역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생계까지 함께 책임지려는 교회는 적기 때문이다.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의 생계를 돕는 일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은 중대형교회에서 힘써야 할 일이다. 초대교회와 칼빈 지도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비어스 선교정책 (Nevius 宣教政策)”

때이다(전강수, 1991: 2009).

Ⅲ. 성경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재정적 자립을 했는가

구약시대에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시대마다 사역했던 선지자들(혹은 사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승호는 『이중직 목회』에서 구약시대의 이중직 목회의 예로 아담-농부, 아벨-목자, 가인-농부, 노아-농부, 아브라함-목자, 모세-목자, 여호수아-담나 건설, 기드온-밀 타작, 아모스-농부, 호세아-상인 등으로 제시하는 도르(Luther M. Dorr)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몇몇 예외가 있지만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자급자족했거나 혹은 이중직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김승호, 2016: 60-62)”고 말한다.

이중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도록 구별하여 세운 대표적 존재인 레위인들(제사장을 포함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는데 장자가 한 집안의 대표인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민 3:12,45)⁷⁾.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이 거함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신 12:19; 14:27).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주할 성읍을 예비뿌아 나누어준 일이다(민 35:1-8; 수 21:1-7).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참고. 민 18:24-29; 신 18:1-8).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의 직임이 만인 제사장으로 확장된다(벧전 2:9).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목회자를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단순히 일반화하여 여길 수는 없다. 김승호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 현 시대의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현 시대의 목회자의 직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한다(김승호, 2016: 64). 오늘날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섬기며 봉사한다. 하지만 목회자는 신약시대에 분명히 존재하는 역할이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다(엡 4:11). 본 논문의 목적은 신약시대의 목회자의 사역과 삶의 조화를 위한 것이지 목회자의 직분과 관련한 역할에 대한 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의 책 『예언의 은사』를 참고하기 바란다.⁸⁾

7) 제사장의 수도 이 전체 숫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이 책에서 그루뎀은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표1>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비롯한 제사와 절기 등 구약의 개념들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구약	신약
제사장 직분과 역할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 직분과 역할	제사를 돕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며,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섬김.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것.
희생 제사 및 소제와 전제 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심. 그러므로 희생제사에서 제사장의 소득이 나오지 않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러졌다고 함(딤후 4:6).
레위인에게 주어진 십일조	십일조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없음. 십일조를 드렸던 바리새인의 전통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언급하시며 금하지 않으셨기에 십일조는 신약시대에도 이어짐. 하지만 그 용례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모두 목회자를 위해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	구약시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의 의미를 신약시대 성도들이 되살릴 수 있음.
첫 열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모세 오경에 명한 7대 절기만 아니라 부림절과 수전절과 같은 절기들이 더하여져서 예수님 당시에 지켜졌음. 예수님께서서는 절기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셨으며 절기를 폐하지 않으심.
정결예식 등	정결예식에 따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눅 2:22),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음(행 10장).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정결예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함(행 15:11; 고전 8장; 갈 2:16).
희년	예수님이 친히 희년을 선포하셨음(눅 4:18-19).

<표14>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연계

<표1>에서 보듯 구약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그 의미와 사용이 단절된 것은 희생제사 및 다른 제사이며 여기에 따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⁹⁾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사장을 위해 봉사했던 레위인들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목사는 사도가 아니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도 구별된다. 사도는 성경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직분으로서 오류가 없지만, 목회자나 신약시대의 선지자 등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특별제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진위와 권위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9)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마 8:4; 눅 1:5)과 레위인들(눅 10:32; 요 1:19)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라—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등의 번제물을 목돈을 받고 파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마 21:13; 막 11:17).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개하셨다(마 21:12).

2:9에서처럼 이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일은 구약시대 레위인들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의 역할로만 한정되지 않고, 선지자적 역할도 있기에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재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신구약을 연계한 폭넓은 탐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사장의 직무는 폐하여졌고, 만인제사장으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는 오히려 더 새롭게 되었다. <표1>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레위인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에 따른 레위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도움으로 회막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신 18:1).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집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작은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텃밭에서는 채소와 과일 등을 재배하며,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를 기르고, 염소와 양, 나귀 등의 짐승을 소량 기르고 그것에서부터 털과 고기, 우유 등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소소한 것일 뿐 이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넘어, 풍성함이 되지는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신 12:12; 14:27,29).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림이 포함된다.

1. 레위인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의미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넓은 기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레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신 10:8-9). 이 말인 즉 레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히 11:27).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심으로 레위인의 삶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토지가 있어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기르며, 풍성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먹거리, 그 삶의 풍부함이 결국은 넓은 토지나, 자신의 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에 땅의 소출을 얻음을 알게 하려함이다(신 8:11-20).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들의 삶이 아무 기업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먹을 것을 얻고, 살게 됨으로 알게 하셨다. 거울처럼 말이다. 레위인의 삶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살 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 4:4)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에 때로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이런 점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이처럼 궁핍할 때에도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거할 집과 그들의 가족을 기를 초목이 있었다. 기본소득이었다.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기본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만민의 권리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변했다(김회권, 2022: 400-422). 레위인들도 이러한 공의의 대상인 것이다(레 25:32-34). 통합교단에서 개척을 하고 노회에 가입한 목회자에게 최저생활비 100만원을 주었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김승호, 2016: 205).

2.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레위인과 동일한 원리로 삶

따라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된다. 또한 목회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보는 성도들은 그들의 힘으로 돈을 모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한 것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염려치 말 것에 대해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근거하여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마찬가지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고 또다시 물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야말로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33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시대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으로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삶의 윤리가 바르게 형성되는데 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마음을 주의 뜻으로 왜곡하는 습관을 배격하기 때문이다(살후 3:6).

하지만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기본적 생활의 바탕이 되는 토지와 성읍이 없다(민 35장; 수 18:7, 21장).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으로 삶의 필요를 공급받지만, 무엇이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토지와 성읍'이 될 수 있을까.

본질상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레위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목회자를 세우셨으며, 그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딤후 5:18). 이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며(눅 10:7), 주님께서도 친히 그러한 섬김을 받으셨다(눅 8:1-3). 따라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비가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과 토지의 의미라면 이 금액은 목회자가 생활하며, 사역과 삶의 유기적 연관성을 갖도록 함에 적합한 수준이면 족하다.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받아 성도들의 삶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¹⁰⁾ 이형원은 이렇게 말한다(이형원, 2009: 168-169).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여 삶의 목표를 물질이나 부동산을 늘리는 데 두게 된다면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권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 축복을 가늠하는 절대 기준처럼 강조되고 있는 한국 교계에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범주를 넘어선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10) 여호수아 13-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레위인들이 받은 땅은 전체 가나안 땅의 0.1%도 안 되는 성읍과 토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현재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인 22,070km²를 기준으로만 해도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 대비해 레위인을 4%로 볼 때 이것은 자립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와 성읍임을 알 수 있다(<표2> 참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없으니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신 14:27).

지파	인구수(민 26장)	분배받은 성읍(수 13-22장)
르우벤	43,730	12성읍 이상과 토지
시므온	22,200	19성읍과 토지
유다	76,500	112성읍 이상과 토지
잇사갈	64,300	16성읍과 토지
스불론	60,500	12성읍과 토지
단	64,400	18성읍과 토지
납달리	45,400	19성읍과 토지
갓	40,500	부정확
아셀	53,400	22성읍과 토지
에브라임	32,500	부정확
므낫세	52,700	동쪽 60성읍, 서쪽 12성읍과 토지
베냐민	45,600	14성읍과 토지
레위	22,273(민3:43)	48성읍과 토지 사방 천 규빗(민35:4)
전체인구 대비 레위인	약 4%	약 0.1 미만의 성읍과 토지를 소유

<표15>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지파의 인구대비 토지규모 분석

부여하신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축복으로 간주하며, 그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

바울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정기적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빌립보교회를 통해서 간혹 지원을 받아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는 빌립보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다(빌 1:7).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자금을 오늘날과 같이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재정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와 노동을 병행하였다. 그렇다고 바울의 자비량 목회가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행 18:1-4; 참고 고전 9:4-17; 행 20:28-35).

이처럼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전임으로 목회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을 하기도 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른 세속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성격 때문으로, 이를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그대로 따라야 할 목회자의 전형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김승호, 2016: 64). 이러한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사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에 임했고(왕상 19:19-21), 사사 기드온은 평소 자기의 일을 하다가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삿 6:11-8:28).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엘리야와의 만남이 있었고, 선지자의 생도로서 훈련을 받는 일에도 간혹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전(막 1:16-20) 그들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다니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고(요 1:35-42),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함께 참여(요 2:1-11)하는 등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대변했던 사사와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일반적인 일을 겸하고 있었다. 사사는 자기의 일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 중 이사야는 궁중에서 기록관의 일을 했다(대하 26:22). 다니엘은 잘 알 듯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서 뿔나무를 재배하며 생활했다(암 1:1, 7:14-15).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지냈던 요셉은 철저히 애굽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아무 근심 없이 머물며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명이라는 한 가족의 규모를 넘어 70만에 달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다. 요셉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다윗도 이런 점에서 다윗 왕국이 가지는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다윗은 철저히

목동으로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고, 왕궁에서는 사울의 무기든 자로, 음악치료사로,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으로, 여러 직임을 감당하며, 그 때 그 때마다 많은 시편의 찬양을 남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처럼 일과 사역을 겸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IV. 21C 목회현장의 현실적 대안으로써의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Heaven is Real>이라는 영화를 보면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온다. 이 영화는 콜튼 버포(Colton Burpo)라는 4살짜리 소년이 천국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토드 버포(Todd Burpo)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그의 아버지는 네브라스카 주의 한적한 시골마을의 목사로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이어간다. 극중 토드의 모습에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에 목회를 하는 모습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아마도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러한 이중직 목회를 생업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까닭이다(김승호, 2016: 111-117). 이러한 이중직 목회는 교회의 성장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김재완은 한국교회가 포스트-성장(post-growth) 시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한 것이 이중직 목회라고 말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한다(김재완, 2023: 2).

예수님께서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 목수(木手)의 일을 하셨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직업교육을 받는데 예수님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배운 것이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여인 후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셨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다(막 6:1-3).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선교사역 후 안식년으로 제주에 머물며 한동안 조그만 가족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매이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며 믿음이 약한 주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일을 시작함에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으로 가득했던 나였기에 익숙함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경험이 쉽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선택한 일은 피트니스 사우나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었고, 약 7개월 동안 이 일을 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목수이셨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았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실 만큼 성경에 대해 잘 아셨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요 1:1)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바 미쯔바(Bar Mitzvah)’ 곧 ‘말씀의 아들’로 지라나셨기 때문이다(눅 2:41-51).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 미쯔바’ 예식이다. 유대인들은 ‘바 미쯔바’를 하기 1, 2년 전 성전에 미리 올라가 ‘말씀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제자원, 2004: 253). ‘바 미쯔바’는 종교적 성인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큰 잔치였다. 오늘날의 메시아닉 유대인도 이를 행하고 있다. ‘바 미쯔바’ 후에는 모든 말씀의 책임이 예식이 끝난 자에게 있어 부모는 그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조연자로 남을 뿐이다. 이 행사에는 많은 축하금이 들어와 목돈이 마련된다(김형종, 2015: 268-273). 그러한 유대교적 전통에서 자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분개하신 것이다(정연호, 2010: 189-199).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다. 율법의 정신은 무너져 있고, 율법의 가르침만을 전하는 무너진 집과 같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셨고(마 23:23),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외치셨다(요 2:19). 여기 이러한 건축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묵상하셨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무너지고 곰팡이 난 집을 수리하고 고치시며, 또 그 집에 필요한 집기들을 손수 만들면서, 당시 부패한 종교지도자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마 16:18).

목회자로서 일을 하며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았다. 아마도 이 점이 목회자로서 이중직을 고민하는 경우에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여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최주광은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며 ‘믿음을 찾아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에 ‘목수 목사’가 되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히는데만 6개월, 어깨너머로 현장에서 일을 배운지 8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의 목수가 되었다. 그는 목수와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한다(최주광, 2022: 98-101).

현장에서 일하며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이 고되기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독서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의 모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빈소가 치러진 곳이 전라도 광주였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광주에 도착하니 늦은 밤 12시였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와 현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두 시간 동안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일도 목회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며 그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목회자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1. 목회와 일의 병행, 적용하기

목사로서 목회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목회를 위해 돈을 벌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는 이분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분은 중세적인 것으로 중세에는 소명(vocation)이란 단어가 종교적 직업(사제·수도사·수녀)에만 국한됐지만 루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상인·농부·뜨개질하는 사람·주부 등에게 적용하여 사업이나 집안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earcey, 2006: 160). 그러므로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울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에 머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창조적 접근 방법으로 일과 선교사역을 함께 하는 모습(BAM, Business As Mission)을 종종 보게 되는데 목회의 현장에서는 이 일이 아직은 좀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BAM은 선교사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다. 즉 직업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BAM은 Business For Mission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오늘에 유익하다(엄기영, 2009: 14-21).

나도 중국에서 처음 담임목회를 할 때는 목회와 일을 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선불리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새벽기도와 주중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없애고 바로 직업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낯설었다. 모든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중직이 필요 없을 만큼 목회의 현장이 재정적으로 목회자의 삶을 풍성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목회자는 가르치며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임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막 1:16-20).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일곱 명의 안수 받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는 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행 6:4)였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소명으로 여겨야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목회자라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더욱 목회에 정진해서 양들을 잘 목양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중직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한다. 내가 어떤 일터의 사장이든지, 혹은 직원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회사역과 삶이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부름을 받고 목회의 현장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일과 목회를 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에서 일반직장을 다니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 중에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음을 알기에 필요하다면 이중직을 권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찮은 세상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간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¹¹⁾

우리가 주님의 종이려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앉거나 일어서야 한다. 주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주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교회 일은 주님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은 세상일이라는 잘못된 이분법만 갖지 않는다면, 그 일이 교회의 일이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세상의 일이든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받을 수 있다. 목회자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해도 말이다.

2. 목회와 일터의 병행 속에서 목상의 실례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 목상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목상할 수 있다. 필자는 피트니스 사우나에서 일을 하며 그 사우나의 일과 관련해서 성경을 목상해 보았다.

(1)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눅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갔다. 그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 그 때 예수님이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풀어주셨다. 말씀을 듣다보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같이 하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

11) 율혜(2023) 가을 총회에서는 유달리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2672&code=61221111&cp=nv> (검색일 2023.10.19.)

이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여관에서 머물고 가시라며 붙잡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다. 두 제자는 그 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했다.

엠마오는 온천이 있는 지역인데 뜨거운 물이 샘솟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필자는 사우나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몸을 씻으려고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갈 때에 엠마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그들은 은혜 받으려고 그곳에 온 것도 아니지만,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듯이 그곳에 몸을 담군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했다.

(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요 13장):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 그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다.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세상의 때 묻은 발을 씻으며 우리는 매일 죄 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온 몸까지 씻을 필요는 없지만 일상에서 저지르는 소소한 죄를 회개하여 죄 없이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혹은 하루의 일을 마칠 때 사우나에 많이 온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지은 잘못도 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해 보는 마음도 있는데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여기 오는 분들에게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3) 가이사랴 빌립보(마 16장):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외각인 혈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다. 그곳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이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에 그러실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목적, 인간의 뜻을 물리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판(Pan) 신전이 있는 곳이며, 유명한 관광지였다. ‘가이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기에 아름답

고 볼 것이 많은 곳이었다. 이곳에는 샘이 있어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데 혈문산의 이슬이 녹아 이곳으로 흘러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피트니스 사우나가 사람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no cross, no crown!

(4) 성전에서 나오는 물(겔 47장): 사우나에서 일을 하며 매일 저녁 탕 안의 물을 모두 빼고, 탕 속에 있는 이물질과 벽에 묻은 물때를 닦아 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지저분하게 탕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 교회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 받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샤워도 하지 않고 땀이 묻은 몸 그대로 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탕 속에서 볼 일을 보기도 한다. 그러기에 물을 싹 버리고, 탕을 깨끗이 한 후에 새물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교회도 많이 혼탁해져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서처럼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 온 땅을 가득히 적시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거짓과 탐욕과 음행으로 혼탁해진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한다. 목회자가 그 회개의 첫 시작이다. 한국교회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져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마져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자!

VII. 결론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어부에게 있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는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천국 백성을 건져 올리는 일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다. 어부의 일을 하면서 가졌던 기쁨, 즐거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갖게 된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세상의 직업을 연관시켜 부르기도 하신다. 세상일은 속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거룩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속된 어부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꿈꾸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 음악가, 작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실현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할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을 부르신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으로

표현하는 요리사, 제빵사는 어떤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George, 2005: 535).

이는 요한이 밧모섬에서 황홀경에 빠져 감은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극치이며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벽옥 담장과 진주 대문을 가진 곳이다! 이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권리가 자유롭게 주어질 때 소수의 자본독점이 아닌 진정한 경제변영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의 기자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담은 경제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도록 애썼던 인물이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고민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고민해 볼 일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전심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혹 이러한 일이 안되더라도 목회자는 사역(ministry)과 일(work)을 병행하며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결코 이 일을 책망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셨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일명 구약시대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까마귀의 도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재정의 법칙은 아니다. 레위인 특별히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정의 법칙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정해진 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마 6:24-34) 본 논문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과 삶의 원리를 규명하고 정립하려는 목적 때문에 기록했다. 부디 본 논문을 통해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성경적 법칙을 잘 이해하고, 목회자는 ‘까마귀의 도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원리가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약적 개념의 교회와 신약적 개념의 교회에 따른 목회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연구를 더하고 싶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일뿐 옳고 그름의 차원은 아니다. 구약적 개념의 교회란 기존의 건물과 조직화된 교회 구조를 유지하는 개념이며,

신약적 개념의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 형식의 소모임과 예배로 이중직 목회에 적합한 교회라고 본다. 김승호의 『이중직 목회』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례는 신약적 교회의 개념에 아주 적합하다 (김승호, 2016: 190-221). 구약적 개념의 교회에서 헌금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라면, 후자에게 헌금은 부담이 아닌 자원함에 있다. 이는 다음 연구 과제로 넘기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연구과제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처럼 ‘공공성’과 관련된 것인데 필자는 많은 경우 목회자가 최저 생계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음을 목격하며, 공공성에서 목회자가 늘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완모의 『John Calvin 사회복지』에서도 목회자의 복지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얼마든지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의 개혁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성경의 진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가 노예제폐지를 위해 국회에서 활동했듯이, 성경의 진리를 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교회는 외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의 기본소득도 단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를 넘어, 헨리 조지가 꿈꾸었던 토지의 공공성의 회복에 기초한 사회개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참고문헌

① 단행본:

김승호 (2016). 『이중직 목회』. 대구: 하명출판.

김형종 (2015, 초판 6쇄). 『테필린』.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김희권 (2022). 『자비 경제학』. 서울: PCKBOOKS.

엄기영 (2009). “상하이한인연합교회와 BAM-제2차 SKBF 초청 메시지”. SKBF 조직위원회. 『21세기 선교비전 BAM으로 가는 길』. 상하이: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출판부.

이완모 (2013). 『John Calvin 사회복지와 인간』. 서울: 책나무출판사.

이형원 (2009). “땅 분배 과정에 나타난 설교 주제들(수 16-21장)”. 목회와신학 편집부. 『여호수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정연호 (2010).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제자원 (2004).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106 누가복음 1-8장』. 서울: 제자원.

② 번역서:

Biéler, André.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1992, 초판 2쇄) 『칼빈의 경제윤

- 리』 . 서울: 성광문화사.
- Bimpson, John J. (1994). “1 and 2 Kings.” in D. A. Carson, R. T. France, J. A. Motyer & G. J. Wenham (Ed.)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Leicester LE1 7GP: InterVarsity Press. 김순영 등. (2007, 초판 6쇄). 『IVP 성경주석-구약』 . 서울: IVP.
- George, Henry. (1981). *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 역. (2005, 초판 5쇄). 『진보와 빈곤』 . 서울: 比峰出版社.
- Grudem, Wayne. (2015, 초판 2쇄).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 김동수·김윤아 역. 『예언의 은사』 . 서울: 솔로몬.
- Pearcey, Nancy Randolph. (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 서울: 복 있는 사람.
- Spurgeon, Charles Haddon. *Lectures to my Students*. 이용중 역. (2012, 초판 7쇄) 『목회 황제 스펀전의 목사론』 . 서울: 부흥과 개혁사.
- Torrey III, Reuben Archer(대천덕). 전강수·홍종락 역 (2004, 초판 2쇄).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 서울: 흥성사.
- Walton, John H., Victor H. Matthews & Mark W. Chavalas. (2000).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정옥배 등 (2007, 초판 16쇄). 『IVP 성경 배경 주석: 구약』 . 서울: IVP.

③ 정기간행물:

- 김재완 (2023). “목회자 이중직 현상을 통해 본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쇠퇴하는 교회와 증가하는 선교적 가능성.”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제 자료집』 . 34-43.
- 최주광 (2022). “생존과 소명 사이에서.” 『월간목회』 . 3. 98-101.
- 전강수 (1991). “갈빈의 경제윤리.” 『통합연구』 . 4(2). 203-210.

④ 석·박사 학위논문:

- 김동석 (2023). “성경적 관점에서 본 디아스포라의 歷史性과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牧會와 宣教的 考察과 課題(GKCC 공동체의 사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Cohen University.

⑤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 예장뉴스 2019. 3. 28일자. “세계교회 알아가기(독일 편)”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검색일 2023.08.17.)
GUTENTAG KOREA 2021. 9. 21일자. “독일 교회의 종교 활동 재원은? - 교회세 (Kirchensteuer).”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7331>. (검색일 2023.08.18.)

국민일보 2023. 9. 24일자. “8개 교단 총대에 물어보니... “정년 연장 반대, 이중직 찬성”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2672&code=61221111&cp=nv>.
(검색일 2023.10.19.)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고찰: 목회자의 재정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pastors' ministry and life: Focusing on pastors' finances

논문초록

본 논문은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일치시키고, 목회에 생명력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이다. 오늘날의 목회자의 수입구조는 교회를 통한 사례비가 거의 유일한 재원인데, 사실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에 있어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양극화문제와 개교회성이라는 미명에 가려진 공공회성의 부재가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따른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사역과 삶을 위한 몸부림이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왕상 17:1-7, 일명 까마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의 삶을 위한 재정의 원칙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같았다. 이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이어진다. 게다가 신약시대의 텐트메이킹 사역은 오늘 날의 목회자에게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다(이것을 이중직 목회라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레위인의 성읍에서부터 텐트 메이킹에 이르는 목회적 재정원리를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한다면 침체하는 한국 교회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레 25:18-19).

주제어: 목회자, 이중직 목회,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 텐트 메이킹